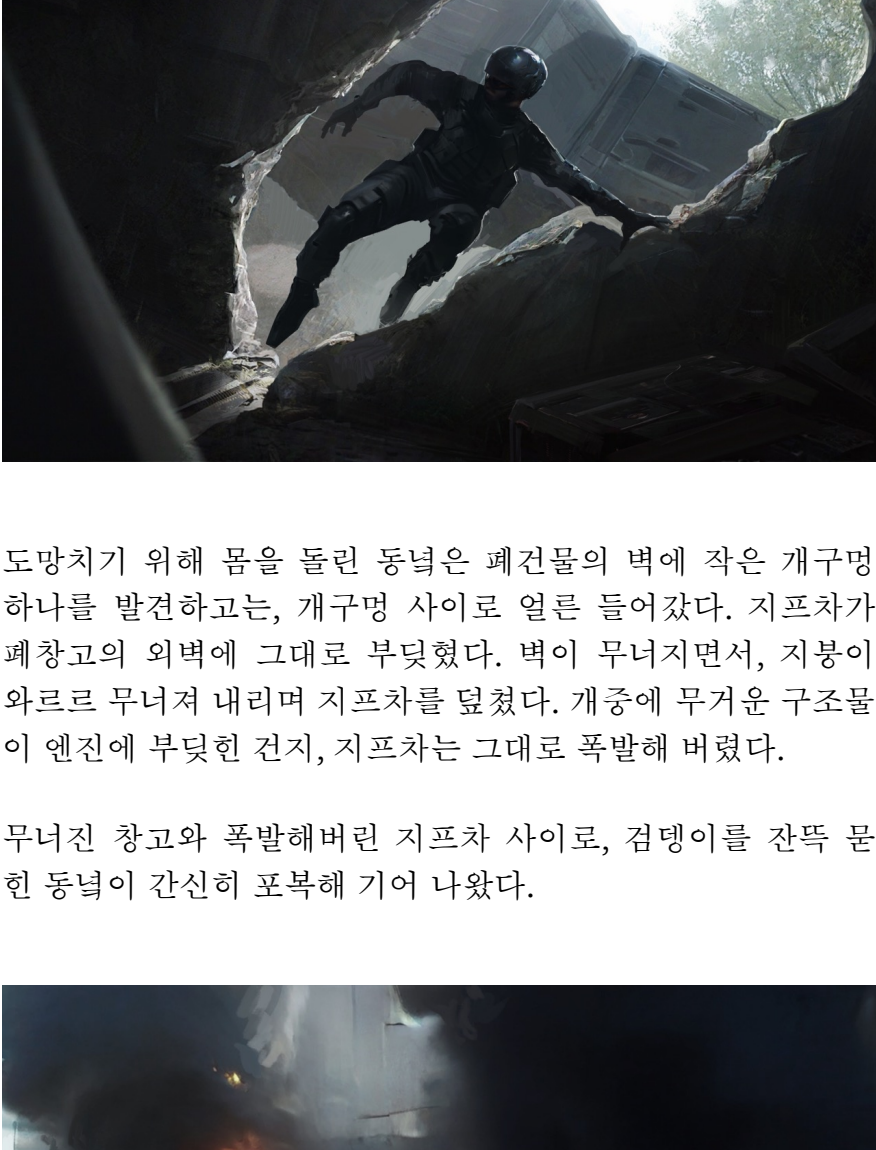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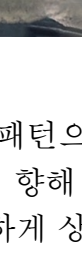


SOULR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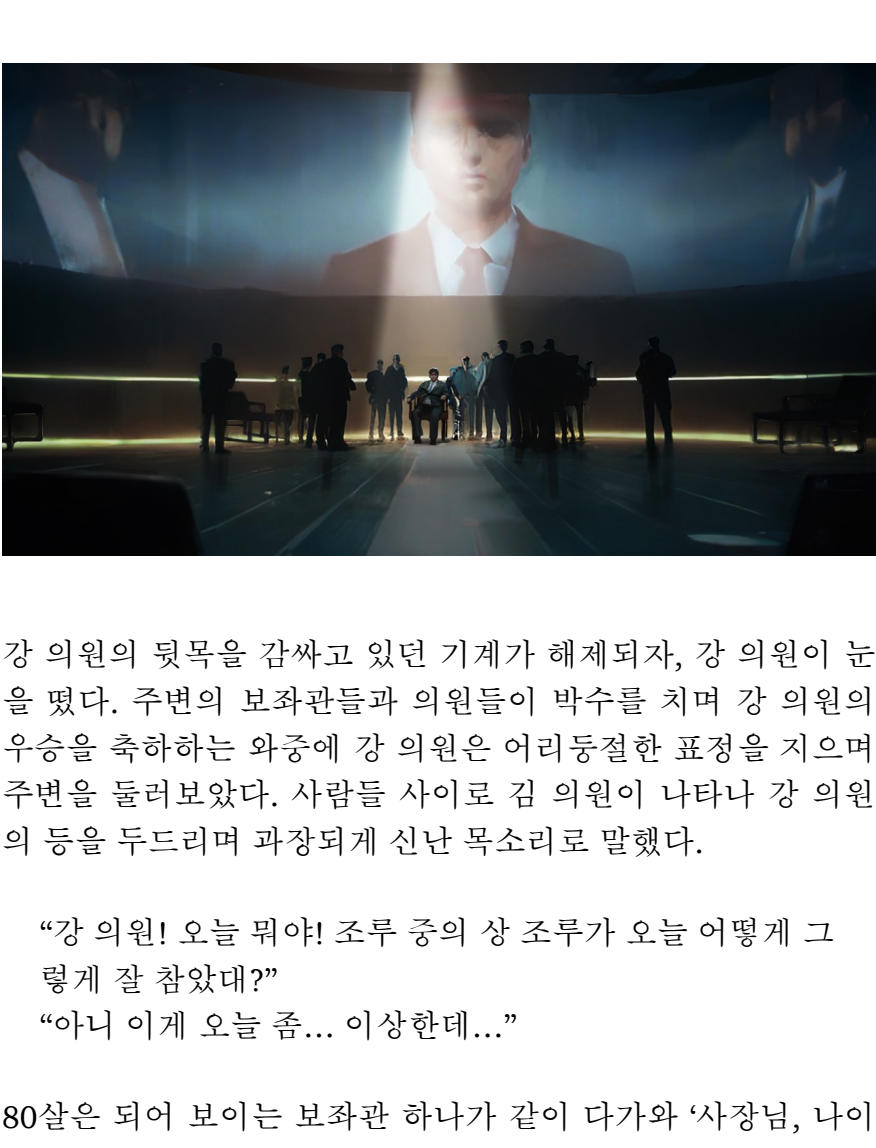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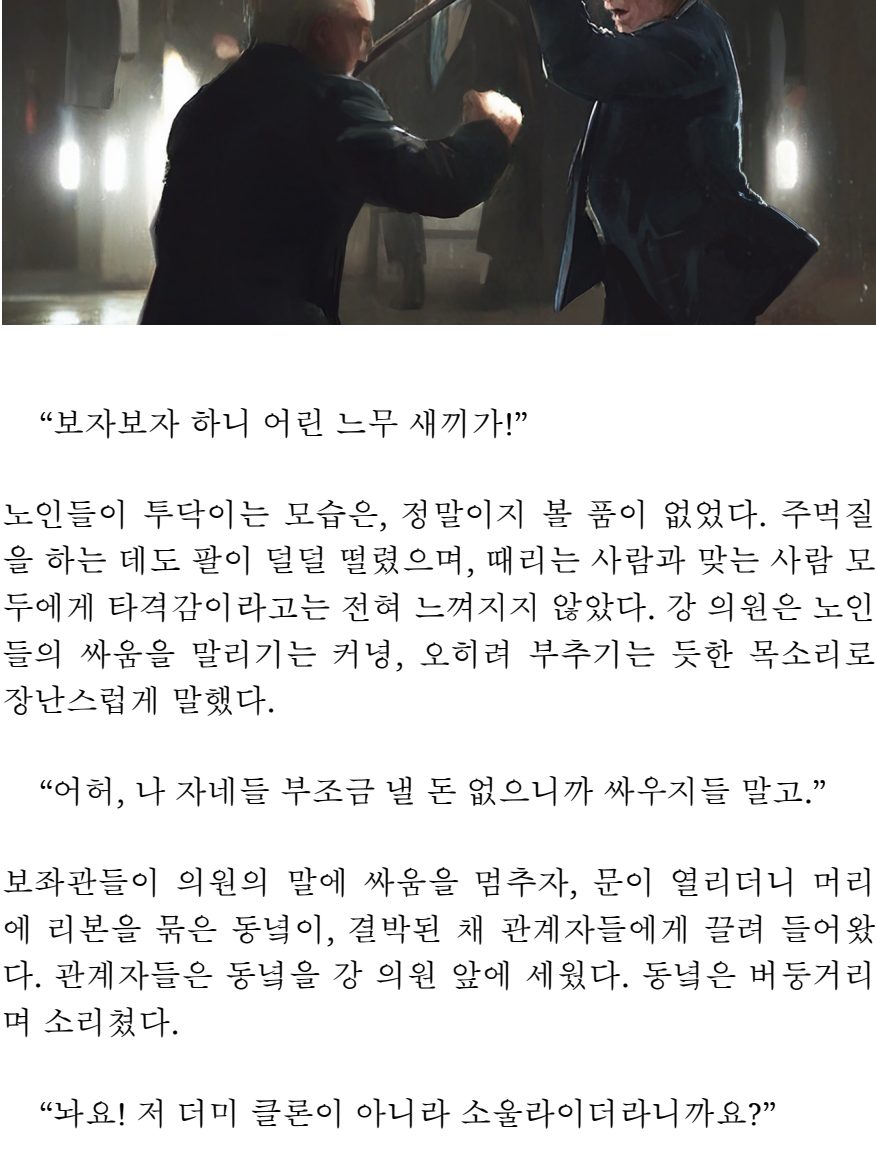
동넛은 최대한 불규칙적인 패턴으로 지그재그로 피해가며 도망쳐 주변에 있던 폐창고를 향해 달려갔다. 어느새 폐창고의 외벽까지 붙은 동넛은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지프차 안에 있던 남자가 총구를 동넛에게 겨누는 채 방아쇠를 당겼다. 이제 끝이구나, 눈을 감으려는데 총이 발사되지 않았다. 총알이 다 떨어졌던 것이었다. 살았구나, 안도함 틈도 없이 남자는 팔장 액셀을 밟아 동넛에게 들진해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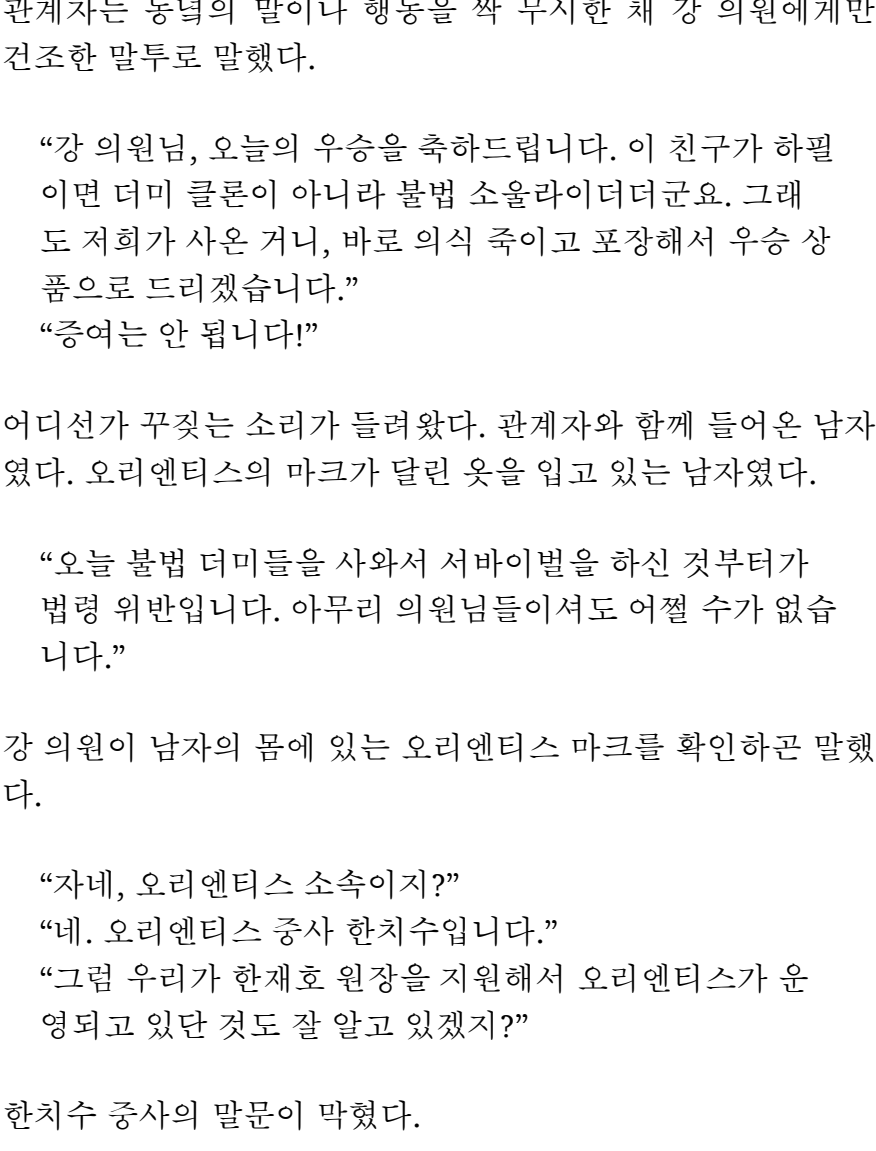


도망치기 위해 몸을 돌린 동넛은 폐건물의 벽에 작은 개구멍 하나를 발견하고는, 개구멍 사이로 얼른 들어갔다. 지프차가 폐창고의 외벽에 그대로 부딪혔다. 벽이 무너지면서, 지프차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지프차를 덮쳤다. 개중에 무거운 구조물이 엔진에 부딪힌 건지, 지프차는 그대로 폭발해 버렸다.

무너진 창고와 폭발해버린 지프차 사이로, 김템이를 잔뜩 묻힌 동넛이 완전히 포복해 기어 나왔다.



갑자기 손목에 차고 있는 단말기에서 ‘위너’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저 멀리 헬리콥터에서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소리가 들려왔다. 동넛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 볼 뿐이었다.



강 의원의 뒷목을 감싸고 있던 기계가 해제되자, 강 의원의 눈을 떴다. 주변의 보좌관들과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강 의원의 우승을 축하하는 와중에 강 의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을 사이로 김 의원이 나타나 강 의원의 등을 두드리며 과장되게 신난 목소리로 말했다.

“강 의원! 오늘 뭐야! 조루 중의 상 조루가 오늘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았네?”

“아니 이게 오늘 좀... 이상한데...”

80살은 되어 보이는 보좌관 하나가 같이 다가와 ‘사장님, 나이 스스’하는 표정으로 거듭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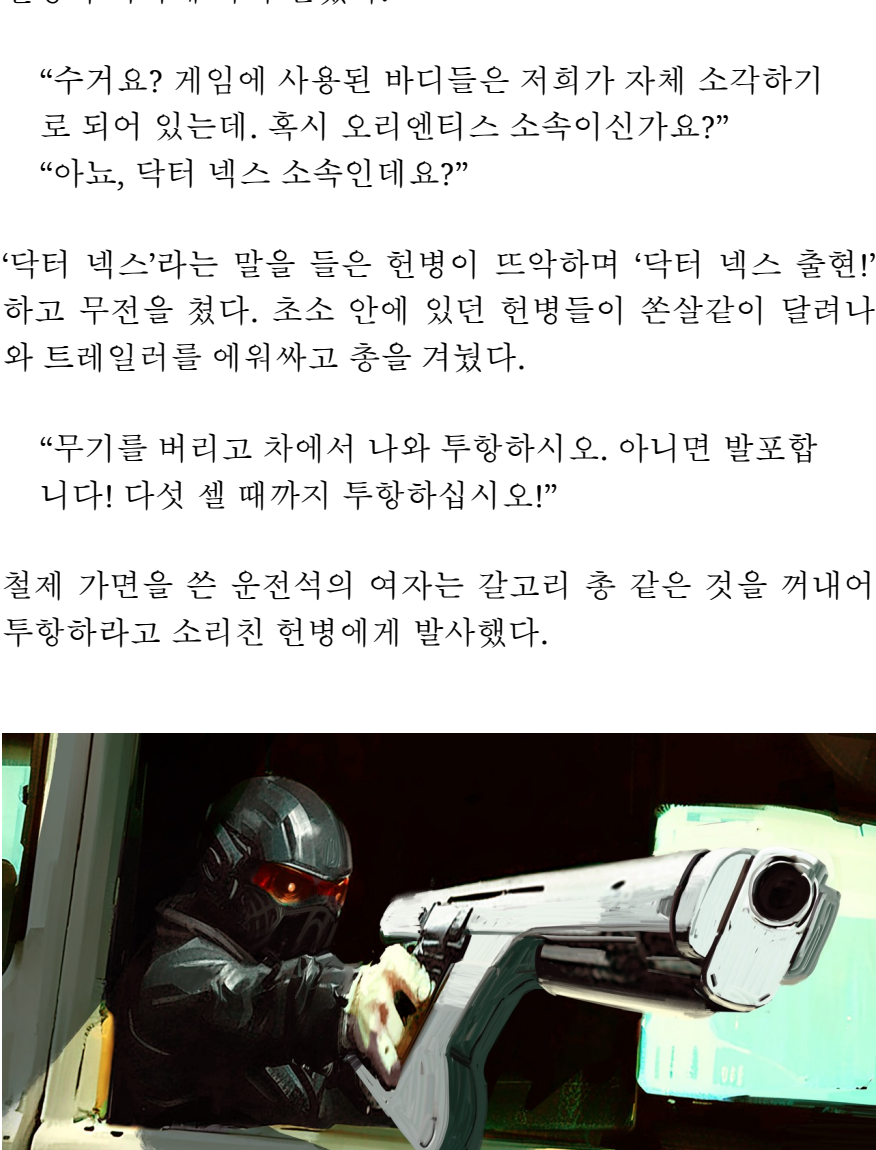
“의원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시체 메타부터 마지막 몸놀림까지! 역시 우리 의원님은 재갈랑 뻘 치십니다. 150세의 인륜은 무시할 수가 없더니까요요!”

“의원님! 그러면 오늘 부상으로 받으실 그 몸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집에 얼려 두었다가 라이딩을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다시 클론으로 갈아 타실 예정이신지? 외람되오나 제가 수명이 거의 다 되었고, 대출도 안 나와서 클론도 좀 힘들고...”

온몸이 주름으로 가득한 늙은 보좌관이 지팡이를 짚고 툭툭거리며 끼어들었다. 먼저 능청하게 아무하던 보좌관이 아니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 사람들, 갈 사람은 가야지! 인륜은 우리 의원님처럼 훌륭한 분들로 가득해야 하는 거야, 자네 같은 사람은 죽는 게 나야!”

지팡이를 짚고 나타난 보좌관이 아무하던 보좌관의 머리를 지팡이로 가격하며 소리쳤다.



“보자보자 하니 어린 느루 세기가!”

노인들이 투박이는 모습은, 경망이지 볼 품이 없었다. 주먹질을 하는 데도 팔이 덜덜 떨렸으며,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 모두에게 타격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노인들의 싸움을 말리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목소리로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허, 나 자네들 부조금 널 돈 없으니까 싸우지들 말고.”

보좌관들이 의원의 말에 싸움을 멈추자, 문이 열리더니 머리에 리본을 묶은 동넛이, 걸박된 채 관객자들에게 팔려 들어왔다. 관객자들은 동넛을 강 의원 앞에 세웠다. 동넛은 버둥거리며 소리쳤다.

“와요! 저 더미 클론이 아니라 소울라이더라니까요?”

강 의원을 발견한 동넛이 강 의원을 향해 소리쳤다.



“내 몸에 라이딩 했던 게 당신이었어? 아저씨인줄 알았는데, 아 클론인가? 아무튼, 나 클론 아니라고 얘기 좀 해줘요!”

관객자는 동넛의 말이야 행동은 딱 무시한 채 강 의원에게만 건조한 말투로 말했다.

“강 의원님, 오늘을 축하드립니다. 이 친구가 하필이면 더미 클론이 아니라 불법 소울라이더더군요. 그래도 저희가 사는 거니, 바로 의식 죽이고 포강해서 우승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중에는 안 됩니다!”

어디선가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관객자와 함께 들어온 남자가였다. 오리엔티스의 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있는 남자였다.

“오늘 불법 다미들을 사해서 서바이벌을 하신 것부터가 범법위반입니다. 아무리 의원님들이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 의원의 남자의 몸에 있는 오리엔티스 마크를 확인하곤 말했다.

“자네, 오리엔티스 소속이지?”

“네, 오리엔티스 중사 한치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재호 원장을 지원해서 오리엔티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겠지?”

한치수 중사의 말문이 막혔다.

“오리엔티스는 나라의 녹을 먹는 기관인데 의원님들께 이런 더미 클론이 아니라 불법 소울라이더냐? 자네가 이런 한 원장에게도 좋지 않은 거 알고 있지 않을까?”

“...”

강 의원이 돌아가려다 멈춘 한치수의 의원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 뭐 하나만 물어보지. 소울라이딩을 하는데, 라이더 의식이 살아있는 게 가능한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이딩 중에 라이더의 의식은 무조건 비활상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몸에 의식 두 개가 공존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강 의원이 여전히 버둥거리며 저항하고 있는 동넛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 나도 그런 아는데, 아까 게임 중에 이 새끼 의식이 살아있었다니까? 몸도 제멋대로 움직이고?”

치수는 놀란 표정으로 옆의 관객자에게 물었다.

“왜 뭐야? 소울라이더야?”

“불법 마켓에서 사왔는데요. 주민번호도 안 찍히고 해서 불량 클론이라 생각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동넛이 답답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아까부터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최동넛이라 하고요! 클론 아니구요! 주민번호는 자기 할배가 너무 아파서 동사 무소에 등록을 누락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파고다 공인 마켓에 강 사장 밑에서 일하고요! 면허는 없고, 마이킹 땀겨죽다고 해서 온갖 온 건데 사람 죽이는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구요, 이제 내가 다 봤으니까 당신들 전부 내가 신고할 거예요!”

치수가 동넛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다.

“됐고. 너 불법 소울라이더라서 신고하면 먼저 구속될 거야. 그리고 오늘 본 기억은 전부 지워줄 거요.”

치수가 동넛에게 말하는 중에 강 의원이 끼어들었다.

“아니 잠깐, 근데 이 새끼 기억이 지워지긴 하는 거야? 아까 라이딩 할 때도 의식이 살아있던데? 이 새끼 일반인도 레인저 할래고 의식 지우고 내가 쓰다가 혹시 신원 조회라도 걸리면 나 똥바가지 쓰는 거 아니야?”

치수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오리엔티스에서 신재 불법 증여에 대해 허락드리기는 난감합니다. 아무리 주민번호가 조회가 안 되는 바다라 하더라도요.”

“하긴, 막말로 이 새끼 대포 바디일 수도 있잖아. 누가 주민번호 세탁하려고 만든 거. 그 닥터 넥스인지 세모인지 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유통하는 거.”

‘닥터 넥스’라는 말에 치수의 몸이 움찔했다.

“그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헌병들이 클럽하우스 밖을 지키고 있는데 대형 트레일러 하나가 헌병들이 지키고 있는 조소 앞에 멈춰.

헌병이 트레일러 운전석 앞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두드리자 트레일러의 운전석 창문이 열리며 철제 가면을 쓴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이는 20대 정도일거.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늘 게임 있다고 해서 시체 수거하러 왔습니다.”

헌병이 의아해 하며 말했다.

“수거요? 게임에 사용된 바디들은 저희가 자체 소각하기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오리엔티스 소속이신가요?”

“아뇨, 닥터 넥스 소속인데요?”

‘닥터 넥스’라는 말을 들은 헌병이 프악하며 ‘닥터 넥스 출현!’ 하고 투덜을 쳤다. 조소 안에 있던 헌병들이 손발같이 달려나와 트레일러를 에워싸고 총을 겨누었다.

“무기를 버리고 차에서 나와 투항하시오. 아니면 발포합니다! 다섯 셀 때까지 투항하십시오!”

철제 가면을 쓴 운전석의 여자는 갈고리 총 같은 것을 꺼내어 투항하라고 소리친 헌병에게 발사했다.

총에서 발사된 갈고리 같은 것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스스로 헌병의 뒷목을 자리를 잡고는 꼭 침을 놓았다. 목 뒤를 찔린 헌병의 눈동자가 뒤집어지더니 의식을 잃었다. 운전석에 앉았던 여자가 눈을 감자, 헌병의 눈이 뜨여졌다.

“닥터 넥스 소속이라고 했는데, 라이딩 건 쓸 줄은 몰랐나?”

어느새 헌병의 몸을 차지한 여자가 헌병의 입을 벌려 말한 뒤, 주변 군인들에게 총을 납사해 쓰러뜨렸다.

헌병은 수류탄을 꺼내 핀을 뽑더니 자신의 입에 물고 눈을 감았다. 여자가 다시 눈을 떴다. 여자는 갈고리 총처럼 생긴 라이딩 건을 조작해 갈고리를 수거한 뒤 초소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클럽하우스를 향해 돌진했다.

헌병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입에 물린 수류탄을 보고 놀라는 동시에, 수류탄이 폭발했다.

테러리스트들이 습격했다는 소식에 클럽하우스에서는 늙은 보좌관들의 시중을 받으며 젊은 의원들이 대피하는 장관이 펼쳐졌다. 치수가 포승줄에 묶인 동넛을 데리고 나오며 강 의원에게 말했다.

“그럼 의원님, 이 친구는 저희가 조사 후에 문제가 없으면 이원님 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뒀, 근대 딱히 몸이 좋은 것도 아니구요 해서 그냥 내내 가지요. 아니면 우리 보좌관들이나 죽지 뭐.”

강 의원의 시중을 들던 보좌관 두 명의 안색이 밝아졌다. 대피하는 사람들의 앞에 트레일러가 멈춰 서더니 철제 가면을 쓴 테러리스트를 대어섯병이 트레일러를 빠져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갈고리 총처럼 생긴 라이딩 건이 들려 있었다.

“닥터 넥스 군단이다!”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우왕좌왕 도망치면서 클럽하우스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테러리스트들은 의원들을 향해 라이딩 건을 발사했고, 의원들의 몸을 강악한 테러리스트들은 의원들의 몸을 이끌고 트레일러의 철창 안으로 들어간 뒤 다시 자신의 몸으로 의식을 전이했다. 다시 의식이 돌아온 테러리스트들은 다시 의원들을 향해 라이딩 건을 발사하는 걸 반복했다.

치수는 테러리스트들이 의원들의 몸을 강악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동안에 노려 공격하려 했지만, 테러리스트들은 치수가 발사하는 것보다 더욱 노련해서 의원들의 몸으로 치수의 공격을 막아냈다. 치수가 오리엔티스의 본부에게 무전을 쳤다.

“은성아 여기 닥터 넥스가 침입했어, 얼른 와줘야겠다!”

치호가 테러리스트들과 투박이는 동안 동넛은 어떻게 도망칠 곳이 없을지 몰라보았지만, 몸이 묶여서 제대로 움직이기기도 힘든 마당에 도망치는 것은 더욱 요원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때, 화려한 장갑과 갑옷으로 무장한 인물이 저 멀리서 동넛을 향해 철저히 오는 게 보였다. 테러리스트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이 인물이 ‘닥터 넥스’라는 것을 추측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변조된 목소리였지만, 감투를 입은 인물이 남자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다. 동넛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왔다면 이렇게 묶여 있었다는 듯 포승줄에 묶인 몸을 보이며 말했다.

“저도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라고요.”

“어디서 떠나라.”

“아니, 나도 떠나고 싶는데 이게 다 묶여 있어서 이런 거라니까요?”

닥터 넥스는 품 속에서 칼 하나를 꺼내 동넛을 묶은 줄을 끊었다. 자유로워진 동넛이 방방 뛰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근대 젊은 몸은 다 납치하고 있는데, 저는 왜 안 잡아가요? 나 정도면 쉼장치 않나? 아, 갑자기 자존심이 상하네?”

트레일러를 운전해 들어온 여자가 닥터 넥스에게 다가왔다.

“대장, 이 친구는 그냥 두시는 겁니까?”

닥터 넥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총격 소리와 함께 오리엔티스 부대의 차량이 굉음을 울리며 다가왔다. 자동 운전이 되는 무장한 차량 한 대와 네 대의 바이크가 트레일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닥터 넥스는 익지로 동넛을 트레일러에 태웠다.

도로 위에서는 닥터 넥스와 오리엔티스의 추격전이 펼쳐지고 있었다. 닥터 넥스는 오리엔티스를 향해 라이딩 건을 발사했지만, 오리엔티스의 대원들에게는 라이딩 방지 장치가 달려 있어 라이딩 건이 통하지 않았다. 오리엔티스 대원들과 닥터 넥스 군단 모두 총알도 뿜겨내는 강박을 입고 있어, 둘 사이에서는 결판이 나는 일이 요원해 보였다.

결국 총 대신 육탄전으로 싸우기로 한 오리엔티스 대원들과 닥터 넥스 군단이 서로의 트레일러와 바이크 위에서 주박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육탄전엔 더 노련한 것은 닥터 넥스 군단이었던 모양인지, 오리엔티스 대원들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소현, 네트워크를 활성화 해줘. 지금부터 내가 모든 대원들을 조종한다.”

은성은 트레일러 뒷쪽에 쓰러진 소현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 소의 의식이 돌아오는 사이, 오리엔티스의 대원들은 트레일러 철창에 갇힌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닥터 넥스 군단이 도주하고, 오리엔티스 대원들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동넛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동넛이 도망치는 것을 발견한 치수가 동넛을 뒤쫓기 시작했다.

강물이 흐르는 다리 위를 달리는 동넛을 향해 치수가 라이딩 건을 발사했다. 동넛의 뒷목에 적중해 치수가 동넛의 몸을 제어하는데 동넛은 의식을 잃기는 커녕, 자신의 의지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치수는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동넛의 몸을 회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몸으로 의식을 되돌린 후, 오리엔티스의 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몰아가 합류했다.

강물 급류가 떠내려가던 동넛은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강물에서 빠져나왔다.

Continued to ep.03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